

1 동정

- ▶ '직지'를 세상에 알린 재불학자 박병선 박사는 지난 10월 28일 건강을 회복하고 프랑스로 출국했다. 박 박사는 그동안 암 수술을 마치고 서울 근교에서 요양한 바 있다.
- ▶ 유태우 한국전문신문협회 회장은 지난 11월 19일 프레스센터에서 2010년 전문신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 ▶ 한철희 한국출판인의회 회장은 지난 11월 30일 연세대 동문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2010 출판인의 밤' 행사를 가졌다.

2 부음

- ▶ 권오준 문화체육관광부 출판인쇄과 주무관의 장인이 지난 11월 15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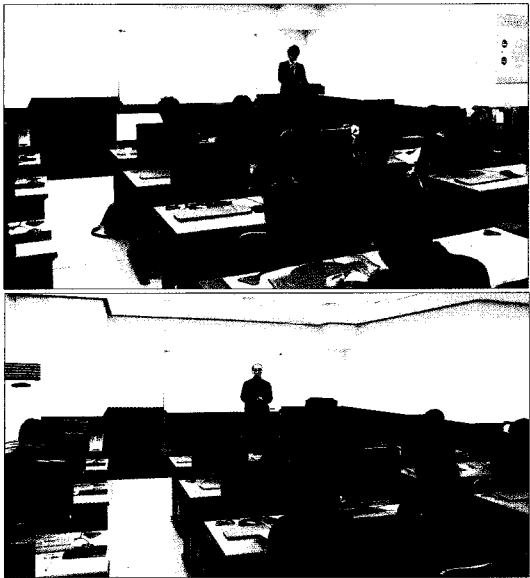
3 화촉

- ▶ 반덕환 세진맥피아 사장의 장남 재욱 군이 지난 11월 27일 용산 아이컨벤션웨딩 아모르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 ▶ 채대기 삼성인쇄(주) 전무이사의 차남 수훈 군이 지난 11월 20일 AW컨벤션 그랜드볼룸에서 화촉을 밝혔다.
- ▶ 조기홍 전 삼성종합인쇄사 대표의 차남 영훈 군이 지난 11월 20일 그랜드 앰버서더 서울호텔 2층 그랜드볼룸에서 화촉을 밝혔다.
- ▶ 김중영 한국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의 장남 대현 군이 지난 11월 25일 여의도 63빌딩 그랜드볼룸에서 화촉을 밝혔다.
- ▶ 박성권 월간 프린팅코리아 기자가 지난 11월 20일 강남웨딩컨벤션 그랜드 홀에서 화촉을 밝혔다.

인쇄단체 · 기관뉴스

인쇄문화협회, 인쇄전문인력 양성과정교육 실시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지난 11월 2010년 하반기 인쇄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을 실시했다. 인쇄전문인력 양성과정은 정부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디지털시대에 적용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인쇄문화사업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의 무상교육사업이다. 이번 교육은 인쇄물 편집교정 실무과정(매주 화요일), 인쇄물 수출전문가 과정(매주 목요일) 등 2개 과목이 개설 되었으며 11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 4주간 교육을 실시했다. 수강료는 무료였으며 관련교재 또한 무상으로 제공되었다.



대한인쇄문화협회 정기이사회 개최

대한인쇄문화협회(회장 홍우동)는 지난 11월 23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호텔PJ에서 제1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상정의 안인 3/4분기 재무제표를 원안대로 승인하는 한편 2011년 정기총회 개최일자를 2011년 2월 24일 오전 10시 30분 호텔PJ에서 개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총회 개최시 임원선거를 위한 선거관리위원 선임의 건을 회장에게 위임했다. 의안 심의에 앞서 홍우동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 협회에서는 국고와 지방비 지원사업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으며 서체개발과 인력양성 사업, 직지 및 인쇄문화 전시사업, 편집교정사 자격제도 연구 사업 등이 곧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며 "이처럼 협회 사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성원해 준 이사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서울인쇄조합, 제4회 정기이사회 개최

서울인쇄정보조합(이사장 조정석)은 지난 11월 18일 서울인쇄센터 7층 강당에서 2010년도 제4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사회는 개회사, 전차의사록 낭독, 업무 집행상황 보고, 2010년 3/4분기 재무제표 보고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조정석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조합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조합원사에서 필요로 하는 인쇄용 원·부자재 등을 현 구매가격 보다 저렴하고 좋은 조건에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여 조합원사의 편익을 도모하고 새로운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인터넷쇼핑몰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내년에는 품목을 다양화 하고 거래조건을 새롭게 하는 등 초심으로 돌아가 쇼핑물사업을 더욱 활성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기이사회에서는 사업보고 및 모든 안건들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의 건도 승인했다.

서울인쇄조합, 장학금 전달식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이사장 조정석)은 지난 11월 22일 인쇄센터 7층 강당에서 조합원사 직원 자녀들에 대한 2010년도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은 총 32명으로 금옥여자고등학교 강보경양의 16명의 고등학생과 광신중학교 강민지 양의 14명의 중학생이 소정의 장학금을 전달받았다.

조정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서울인쇄조합 장학생으로 선발된 학생들이 무한한 잠재력을 개발하여 큰 포부를 펼치고 사회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과 봉사의 미덕을 함양한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하여 세계 속의 큰 기둥이 되어 주길 바란다. 아울러 자녀를 훌륭하게 키워 내신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조정석 이사장은 또 학생들에게 “여러분들의 부모님께서 몸담고 계신 인쇄산업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닌 한 나라의 문화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자, 정보화 사회의 근간이 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국가기간산업”이라며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이끌어주셨기에 가능했다. 그러기에 부모님을 더욱 공경하고 인쇄문화산업인의 가족임에 큰 자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4 이전

- ▶ 광영인쇄사(대표 김종길)가 최근 사업장을 중구 수표동 56-14 금속빌딩 210호 이전했다.
- ▶ 한성애드컴(대표 정명석)이 최근 사업장을 중구 충무로4가 306 남산센트럴자이 310호로 이전했다.
- ▶ 광성인쇄사(대표 김용성)가 최근 사업장을 금천구 가산동 345-50 IT프리미어타워 502호로 이전했다.
- ▶ 천지문화(대표 최원욱)가 최근 사업장을 중구 을지로3가 334-2 청호빌딩 37호로 이전했다.
- ▶ 서중인쇄(대표 홍관선)가 최근 사업장을 중구 인현동1가 53번지 동심빌딩 203호로 이전했다.
- ▶ 명신인쇄사(대표 조승호)가 최근 사업장을 중구 수표동 47-6 천수빌딩 706호로 이전했다.
- ▶ ㈜월드인쇄(대표이사 이광석)가 최근 사업장을 대구시 중구 남산동 616-37로 이전했다.
- ▶ ㈜독일피앤피(대표이사 최정수)가 최근 사업장을 강서구 염창동 264-20 정광인쇄 3층으로 이전했다.

5 변경

- ▶ 정우디피씨(대표 장승준)가 최근 업체명을 ㈜정우디피씨로 변경했다.
- ▶ 우일인쇄(대표 이영기)가 최근 업체명을 ㈜우일기획으로 변경했다.
- ▶ 호박문화사(대표 박기성)가 최근 업체명을 호박엔컴퍼니로 변경했다.
- ▶ 신촌인쇄문화사(대표 전광진)가 최근 업체명을 신촌물산으로 변경했다.
- ▶ 재준정보산업(대표이사 장호규)이 최근 업체명을 ㈜재준피앤피로 변경하고, 주소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설운동 530-83으로 이전했다.

책자부회 정기총회서 김남수 간사장 연임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책자인쇄부회는 지난 11월 10일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김남수 현 간사장(청아문화사 대표)이 연임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장, 민재기 대한인쇄문화협회 명예회장, 김진배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장, 고수곤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 조정석 서울인쇄정보조합이사장, 남원호 상업인쇄부회 간사장, 이기섭 사무용인쇄부회 간사장, 김원희 전산정보부회 간사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여했다.

정기총회는 김남수 간사장의 개회사, 조정석 서울인쇄정보조합 이사장의 격려사, 경과보고 및 결산보고, 임원선출 순으로 진행됐다.

조정석 서울인쇄정보조합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과 없이 마치신 김남수 간사장님께 박수를 보낸다”라며 “그동안 서울인쇄조합은 중구의 인쇄산업지구 조성, 쇼핑물사업 활성화 등 굵직한 사안들을 진행해왔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인쇄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간사장에 연임된 김남수 사장은 “4년간의 임기를 마치면서 인쇄업계의 작은 밑알이 되고자 했다. 그러나 또다시 4년이라는 시간동안 간사장으로서 일하게 됐다.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기도 하지만 책자부회 및 인쇄업계 발전을 위해 열심히 일할 것이다. 계속해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부탁 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이후 임원선출은 신임간사장을 중심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상업인쇄부회 간사장에 서병기 사장 선임



서울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상업인쇄부회는 지난 11월 17일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서병기 현 총무간사(정민프린테크 대표, 사진)를 간사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민재기 대한인쇄문화협회 명예회장, 김진배 대한인쇄정보기술협회장, 고수곤 대한인쇄연구소 이사장, 김지승 전 대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연합회장, 조정석 서울인쇄정보조합이사장, 김남수 책자인쇄부회 간사장, 이기섭 사무용인쇄부회 간사장, 김원희 전산정보부회 간사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여했다. 정기총회는 남원호 간사장의 개회사, 조정석 서울인쇄정보조합 이사장의 격려사, 회의 및 결산보고, 임원개선 순으로 진행됐다.

남원호 간사장은 개회사에서 “IT산업의 발달은 인쇄산업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 변화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 위기를 인쇄인 모두가 함께 강구해서 이겨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조정석 서울인쇄정보조합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대과 없이 마치신 남원호 간사장님께 박수를 보낸다”라며 “서울인쇄조합은 앞으로도 더 많은 활동을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인쇄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신임 간사장으로 선임된 서병기 사장은 “남원호 전간사장님이 상업인쇄부회 간사장으로 선임되면서 희망의 나무를 심는 사람이 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저 역시 같은 마음이다. 앞으로 4년 동안 간사장으로서 열심히 일할 것이며 상업인쇄부회 회원님과 간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이후 임원선출은 신임간사장을 중심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사무용인쇄부회 간사장에 이창래 사장 선임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사무용인쇄부회는 지난 11월 24일 인쇄정보센터 7층 강당에서 정기총회를 갖고 이창래 현 총무간사(㈜상지피앤아이 대표이사)를 간사장으로 선임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날 정기총회에는 조정석 서울인쇄정보조합이사장, 김남수 책자인쇄부회 간사장, 서병기 상업인쇄부회 간사장, 김원희 전산정보부회 간사장 등 내외빈 100여명이 참여했다. 정기총회는 이기섭 간사장의 개회사, 조정석 서울인쇄정보조합 이사장의 격려사, 경과보고 및 결산보고, 임원선임, 기타사항 순으로 진행됐다. 이기섭 간사장은 개회사에서 “인쇄사들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쇄사들이 연합해 단일주회사를 건립해야 한다. 여러 개의 회사들이 하나로 묶이면 중복투자가 줄어들 뿐 아니라 인쇄사 간 출혈도 줄어들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정석 서울인쇄정보조합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4년동안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다. 대과없이 마치고 이기섭 간사장님께 박수를 보낸다”라며 “그동안 서울인쇄조합은 중구의 인쇄산업지구 조성, 쇼펍물사업 활성화 등 굵직한 사안들을 진행해왔다. 앞으로도 인쇄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신임 간사장으로 선임된 이창래 사장은 “간사장으로서 다른 어떠한 일보다 인쇄인들이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사무용인쇄부회 회원님과 간사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안경만 경인정보문화사 대표가 총무간사로 선임됐으며, 나머지 임원선출은 신임간사장을 중심으로 선출하기로 했다. 이날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통과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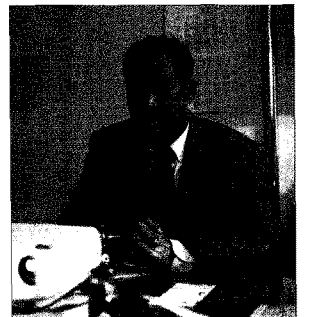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책자인쇄부회 아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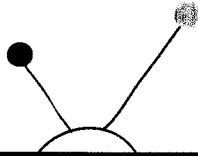
서울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책자인쇄부회(간사장 김남수)는 지난 10월 22, 23일 이틀간에 걸쳐 책자부회 가을맞이 여행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아우회는 경북 안동 하회마을을 시작으로 백암온천, 후포항, 울진 성류굴 등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여행에서 빼놓을 수 없는 각종 먹거리는 여행의 즐거움을 더했다. 대게찜을 비롯해 회, 매운탕, 안동 헛제사밥 등은 이번 여행의 백미였다. 김남수 간사장은 “가을맞이 여행이긴 하지만 집나오면 고생이라는데, 1박2일 동안 간사님들 모두 수고하셨다. 이번 여행을 통해 상대방을 좀 더 이해하고 나를 한 번 더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동국대 RIS, 2단계 인쇄수출진흥사업 시동

인쇄수출진흥 동국대학교 지역연고산업진흥사업단(단장 이의수,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 교수)와 (주)에스피엠씨(대표이사 한정인, 동국대 화공생물공학과 교수<사진>)는 지난 11월 16일 오전 11시 동국대학교 총무로관 RIS사업단 110호 회의실에서 ‘2단계 인쇄수출진흥 동국대RIS 사업소개’를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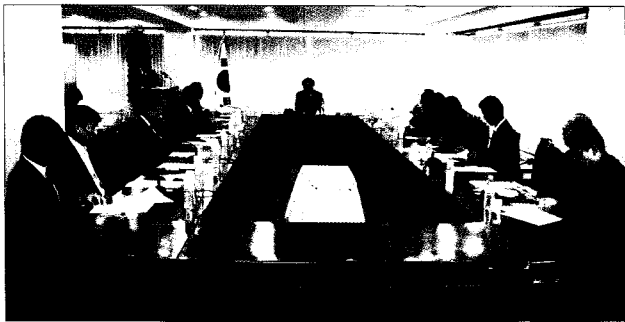


2차 인쇄수출진흥 동국대RIS는 한정인 대표와 이의수 단장이 공동책임 맡았으며, 서울인쇄센터, 대한인크, 월간 인쇄계가 참여한다. 총 사업기간은 2010년 7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34개월이며, 정부출연금 24억 원 지방비 4억8천



만 원 민간부담금 2억7천3백만 원 등 총 31억5천3백만 원의 규모로 진행된다. 2단계 사업인 <프린팅 미디어 산업의 마케팅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사업>은 현재 내수시장의 포화로 인한 과열경쟁을 해소하고, 프린팅 미디어 산업의 매출증대 및 새로운 인쇄시장 개척을 위한 해외마케팅 서비스 시스템 구축과 이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연고산업의 발전과 우리나라 인쇄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제고에 목적을 두고 있다. 우선 (주)에스피엠씨가 중심이 돼서 해외시장 개척, 국제인쇄기술 및 품질인증지원, 웹투프린트 사업, 공동브랜드 사업을 펼친다. (주)에스피엠씨는 동국대 기술지주회사의 자회사로, 해외마케팅 서비스 전문업체로서의 기능과 사업단의 공동주관 기관으로써의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주)에스피엠씨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가 네트워크를, 대한잉크가 기술개발을, 월간인쇄계가 기업지원을, 서울인쇄센터가 인력양성 사업을 진행한다.

대한인쇄연구소, 제2회 정기이사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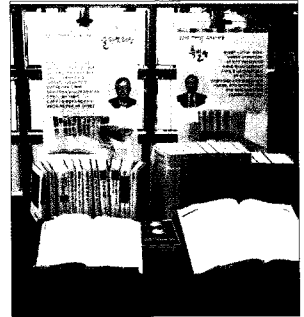


대한인쇄연구소(이사장 고수곤)는 지난 11월 11일 서울인쇄센터 7층 강당에서 2010년도 제2회 정기이사회를 개최했다. 고수곤 이사장은 개회사에서 “연구소 활성화 및 혁신을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한다는 초심을 잊지 말고 열심히 일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업계 전체가 발전하고 공존할 수 있도록 다함께 동참하여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소와 인쇄업계 발전을 위해 훌륭한 고견을 묻고자 한다”며 “여러 분야에 참석한 이사들의 의견들을 진지하게 경청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이사회는 신입이사 인사에 이어 회비문제, 연구소 업무활동, 추진사업보고 등이 있었다. 연구소 업무활동에서는 인쇄표준단가표 제작과 EBS방송교재 품질관리 등 다양하게 제

기됐다. 2009년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 ▲2009년 잉여금 처분안 ▲2010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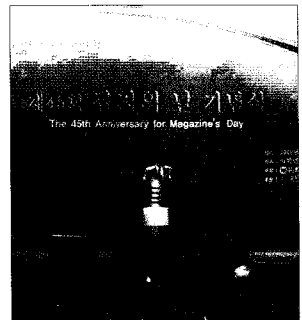
‘2010년 간행물문화대상’ 시상식 개최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위원장 양성우)는 지난 10월 27일 프레젠테이션 20층 내셔널프레스클럽에서 ‘2010간행물문화대상’ 시상식을 개최했다. 양성우 간윤위 위원장은 개회사에서 “수상하신 세분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최종 후보에 오르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독서 선진국이 될 때까지 앞으로도 출판과 독서진흥에 더욱 더 매진하겠다”고 전했다. 저작상은 ‘조선풍속사(1~3)’의 강명관 부산대학교 교수가 받았으며, 출판인쇄상은 ‘인문정신의 탐구’ 시리즈 등 인문·사회 과학 및 교양 도서를 출판한 박우정 김출판사 대표, 특별상은 ‘넓은 풀이 우리말 유의어 대사전(1~7)’을 펴낸 김기형 낱말 대표가 받았다.



한국잡지협회, 제45회 잡지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잡지협회(회장 전용진)는 지난 11월 1일 사학연금회관 2층 강당에서 제45회 잡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한국잡지협회 전용진 회장과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기념사와 축사가 있었고 이어 시상식이 치러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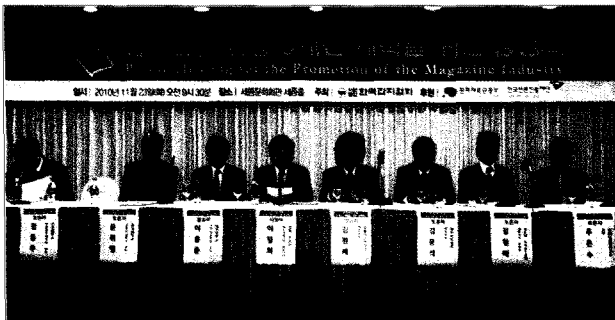


전용진 회장은 기념사에서 “미국·중국·유럽 등은 벌써 디지털 잡지가 구축돼 매체의 홍수 속에서도 잡지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잡지 콘텐츠의 디지털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유인촌 장관은 축사에서 “잡지는 그 어떤 매체보다 고급정보가 세분화 된 정보의 장이기 때문에

온라인 매체가 강해져도 원하는 고급 지식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잡지"라며 잡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시상은 정부포상과 함께 한국잡지언론상, 올해의 인물상, 클린콘텐츠 잡지상, 대한민국잡지광고 대상, 전 국민 잡지읽기 수기공모상이 수여됐다. 이중 2010잡지인이 선정한 올해의 인물상을 수상한 신영균씨는 능력 있는 예술 인재 양성을 위해 500억 원 규모의 사재를 사회에 환원해 우리나라 영화 및 문화 예술계 발전에 기여한 바가 커 올해의 인물로 선정됐다.

한국잡지협회, 잡지 산업 발전위한 공청회 개최



한국잡지협회(회장 전용진)는 지난 11월 23일 서울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잡지업계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청회를 열었다. 전용진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뉴미디어시대에 어려움에 처한 잡지 산업의 현황을 잘 파악하고 이에 대한 좋은 정책을 수립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제1 발표를 맡은 김원제 유프러스연구소장은 '한국 잡지산업 진흥정책의 필요성'을 주제로 잡지 산업은 국가의 품격, 나아가 국가브랜드를 제고해 주는 산업으로서 현대지식정보사회의 핵심적인 콘텐츠를 공급해줄 뿐 아니라 창조적인 콘텐츠로서 일자리를 창출해 주기 때문에 정책적인 차원에서의 지원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제2발표를 맡은 이용준 대전대 교수는 '잡지산업진흥 5개년 계획의 내용'에 잡지산업 진흥기반 조성 등의 6대 추진전략과 잡지진흥기금 조성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대 역점과제가 포함되어야 하며 우리나라의 잡지 산업은 선진국 시장에 비해 30~50% 적기 때문에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경우에는 높은 성장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쇄 · 프리프레스뉴스

인쇄출력용 필름 가격 담합한 7개업체에 과징금 17억 부과

아그파코리아 등 필름판매업자들이 잡지 인쇄 등에 쓰이는 인쇄출력용 필름 가격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진 신고한 아그파는 과징금을 전액 면제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인쇄출력용 필름 및 인쇄판 가격을 담합한 7개 필름판매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억 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업체는 아그파코리아·성도지엘·성도솔루션·코닥그래픽·한국코닥·한국필름·다이니프스크린코리아 등이다. 이중 아그파코리아는 자진신고 1순위로 과징금을 전액 감면 받았으며 성도지엘과 성도솔루션은 공동 2순위로 과징금을 50% 경감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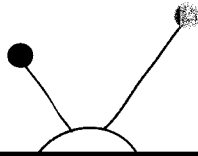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환율 변동과 원자재 가격 급등을 이유로 2008년 두 차례에 걸쳐 인쇄출력용 필름 및 인쇄판 가격을 일괄적으로 올리기로 합의했다.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적발로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쇄업체와 잡지사·출판사·광고물 제작사의 비용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09년도 인쇄출력용 필름 시장규모는 약 604억 원, 인쇄판은 약 1745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중 담합에 가담한 업체의 시장점유율은 필름 86.6%, 인쇄판 45.0%로 추산된다.

하나로애드컴, IBA 5개 부문 워너 수상

하나로애드컴(대표 손정희)에서 제작한 한국공항공사 사보 등 5개의 사보가 지난 9월 27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2010 국제비즈니스대상(IBA International Business Awards)> 대회 시상식에서 STEVIE AWARD WINNER를 수상했다.

하나로애드컴에서 제작한 사보 중 STEVIE AWARD WINNER상을 수상한 부문은 <Advertising/Editorial/Design Agency of the Year>에 하나로애드컴 손정희 대표가, <Single-Market Company of the Year in Asia>에 한국공항공사, <Best Copywriting>에 JDC 사보 <제주의 꿈>이, <Public Information>에 전파진흥원 사보 <전파>,



<Communications or PR Campaign of the Year - Community Relations>에 국립국악원 격월간지 <국악누리>가 수상했다.

IBA는 전세계 기업과 조직들이 한 해 동안 펼친 경영, 인력 관리, 홍보, 마케팅, 제품관리, 고객서비스 등 11개 부문에 걸쳐 평가하는 국제대회다.

제록스·성도GL·후술, 디지털 1인출판체험 진행 '2010 KBS 도서축전-손에 책' 개최



KBS와 KBS미디어가 주최하는 '2010 KBS 도서축전-손에 책'이 지난 10월 29~31일 여의도 KBS 본관 앞 및 KBS홀 광장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책, 만남' '책, 나눔' '책, 소통' '책, 과거와 미래' 등 4개 섹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책으로 만나는 G20, 3D 도서전 등 다양한 테마전시와 체험 프로그램들이 진행되었다.

해마다 유력한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는 고은 시인과 조정래 작가, 김용택 시인이 독자들과 만나고 행사장 곳곳에서 오픈 북카페가 운영되었다. 축구감독 허정무와 뮤지컬 배우 남경주, 텔런트 임현식 등 유명인들이 참여하는 책 기증 행사 '아름다운 책장'과 문화소의계층 어린이 기금 마련을 위한 3천원 도서균일가전도 진행되었다. 한편 '2010 KBS 도서축

전-손에 책'은 책에 대한 관심을 고취시키고 책 읽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행사로, 한국후지제록스와 성도솔루윈, 후술은 이번 행사의 테마별 체험 프로그램 중 '디지털 1인 출판 체험'을 진행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전문 작가가 아니더라도 이번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그 동안 자신이 쓴 글이나 사진을 모아 직접 책 형태로 제작하고 출판하는 특별한 경험을 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이 가져온 콘텐츠를 즉석에서 책으로 제작하고 출판해 주기 위해, 한국후지제록스는 분당 컬러 50매의 빠른 출력속도와 고품질의 이미지를 자랑하는 디지털 복합기 아페오스포트-IV C5570을, 성도 솔루윈은 누구나 손쉽게 책을 제작할 수 있는 '셀프 퍼블리싱' 기술을 지원했다. 셀프 퍼블리싱 기술은 편집 및 레이아웃이 어려워 출판을 못하는 개인이나 출판사가 웹 상에서의 간단한 조작을 통해 편집을 완성하고, PDF, 이퍼브(ePub), 아이패드용 eBook 등 다양한 포맷의 전자책과 종이책을 동시에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다. 후가공 솔루션 업체 후술은 제본기와 재단기를 지원했다.

김상래 대표이사, 서강대학교 특강



(주)성도GL/(주)성도솔루윈의 김상래 대표이사는 지난 10월 26일 서강대학교의 특별 강연에 강사로 초청 받아 "Now, more than ever! 그 어느 때 보다 지금 더!" 라는 제목으로 성도GL/성도솔루윈의 '비전경영' 사례를 중심으로 강의했다. 이번 강의는 사회에 진출하기 전, 학생들에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심어 주고 준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고 밝혔다. 특히 실질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되어 학생들의 이해의 폭을 넓혀 큰 호응을 얻었으며 인쇄산업에 대한 중요성과 문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성도GL/성도솔루원, 메세나협의회 결연식



(주)성도GL/성도솔루원(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10월 27일 일신아트홀에서 한국 메세나 협의회가 주관하는 '2010 기업과 예술의 만남' 결연식에 참가하여 중소기업매칭펀드를 통한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의 결연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행사는 지난 2005년부터 기업과 예술단체가 후원 결연을 해 예술 발전을 도모하고 소외된 계층에 문화적 혜택을 확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으로 (주)성도GL/성도솔루원에서는 2007년부터 후원을 시작하여 헤이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함께 사회 공헌의 일환으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열린 형식의 연주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성도GL/성도솔루원, 전 직원 워크숍 개최



(주)성도GL/성도솔루원(대표이사 김상래)은 지난 11월 6일 북한산에서 전 직원 가을 정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북한산 둘레길 트래킹으로 진행되었으며 자연과 함께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자기 발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

록 구성되었다. (주)성도GL/성도솔루원은 이번 워크숍을 통하여 직원들이 업무에 더욱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고객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신도리코, 공식 기업 블로그 '신도리안' 오픈

신도리코(대표 우석형)는 지난 11월 1일 공식 기업 블로그인 '신도리안'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신도리안(SINDOHrian)'은 신도리코의 새로운 CI인 'SINDOH'에 사람을 뜻하는 'rian'을 더한 합성어로 블로그에



방문하는 모든 네티즌을 의미한다. 주 고객층인 기업인 뿐만 아니라 일반 소비자들까지 자유롭게 방문,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를 담아냈다고 전했다.

신도리코는 블로그를 통해 기업과 제품 정보를 전달함은 물론, 사내 직원문화, 디자인 철학 등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문화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회사 생활을 하면서 사무실에서 겪을 수 있는 에피소드와 이슈를 담아냄으로써 직장인들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계획이다.

블로그_ www.sindohblog.com

한국후지제록스, '희망펀드' 참여자 1천명 돌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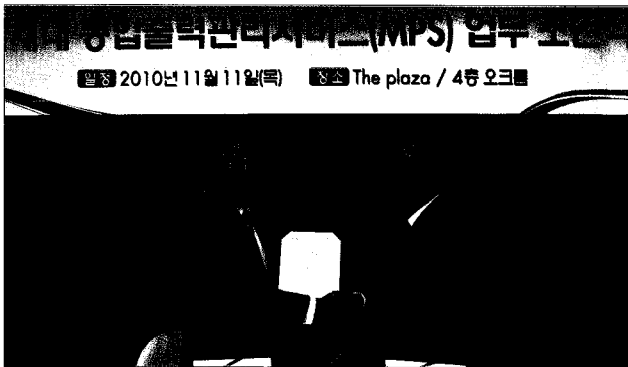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지난 10월 28일 사회적 기업가를 꿈꾸는 대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트위터를 기반으로 모금 중인 '희망펀드'



의 참여자가 시작 열흘 만에 1천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한국후지제록스의 희망펀드는 희망펀드 웹사이트에서 트위터로 직접 응원 메시지를 남기거나, 응원 메시지를 다른 사람들에게 리트윗(전달)할 때마다 1인당 2천 원씩 기부금이 적립되는 방식이다. 총 1천만 원 기부금 적립을 목표로 18일부터 시작된 이 행사에 수 만 명에 이르는 팔로워들을 보유한 저명 인사와 타기업들의 리트윗이 이루어지며 참여자수가 꾸준히 늘고 있다. <http://event.fujixerox.co.kr/fund>

한국HP, 외환은행과 MPS 계약 체결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지난 11월 15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한국HP이미징프린팅 그룹 김상현 전무와 외환은행 서비스지원본부 김수현 부행장이 참석한 가운데 HP 차세대 통합 출력 관리 서비스(이하 MPS: Managed Print Service) 재계약 조인식을 가졌다.

이번 업무 조인식을 통해 한국HP는 'HP디지털복합기'를 비롯한 2500여대의 제품 공급과 함께 전체 시스템 관리를 위한 솔루션 등을 향후 4년간 외환은행 전국 모든 지점의 출력물에 대해 통합 출력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게 된다.

이번 프로젝트 담당임원인 외환은행 김수현 부행장은 "정부 정책인 녹색경영에 맞는 친환경 출력장비 및 솔루션을 금융권 최초로 도입하여 한해 100톤 이상의 CO2 배출량 감소(한해 참나무 33,000그루를 심는 효과와 동일하다)를 예상하고 있다"며 "이번 차세대 HP MPS도입으로 사무환경 개선을 통한 직원들의 생산성 및 만족도 향상과 가시적인 장비비용의 절감 뿐 아니라 네트워크 관리, 사용자 관리 및 전력사용 절감 등 보이지 않는 비용 절감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제품 · 제품관련 뉴스

성진에드컴, 아이폰 앱 런칭기념 이벤트

(주)성진에드컴(대표이사 이정희)은 지난 11월 30일까지 아이폰 앱 런칭 기념 이벤트를 실시했다.

아이폰, 아이팟에서 성진에드컴의 앱을 무료로 다운받고 사용 후기를 이벤트 게시판에 남기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필립스 DS8500과 아이튠즈 기프트카드(10달러 상당)를 증정한다. 당첨자 발표는 오는 12월 16일이다. 한편 성진에드컴 앱은 보다 간단해진 주문과 결제 기능, 바코드 생성 시간의 단축, 개인화 서비스 제공, 웹페이지 연동을 통한 실시간 주문확인 등의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다.

SSCP, 모든 소재에 인쇄 가능한 특수 잉크 개발

특수 코팅소재 전문 기업 SSCP는 최근 모든 첨단 소재 위에 인쇄가 가능한 입체질감 특수잉크를 개발해 내놨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보인 제품은 '고기능, 고효율, 친환경'에 초점을 맞춘 제품이다.

특히 국내 최초로 모든 성분의 소재 위에 인쇄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져 스마트폰, 태블릿PC의 브랜드 로고용으로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 '입체질감 특수잉크'와 유리에서 색감을 제대로 살리며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어 가전제품 디자인의 혁신을 가져 온 '유리용 코제' 시리즈 등이 이번 신제품에 포함돼 있다. 게다가 탄성이 뛰어나 스크래치 발생이 적고 복원 효과도 큰 '신개념 질감 코팅제'는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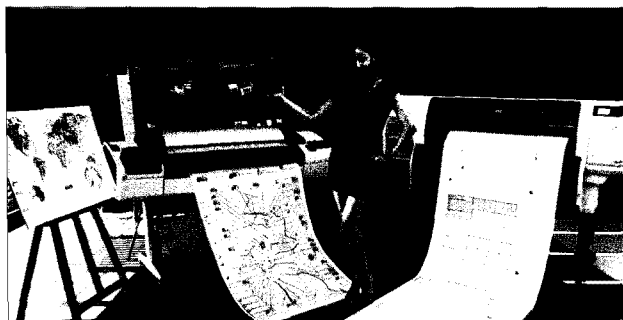
한국후지제록스, G20 정상회의에 복합기 후원



한국후지제록스(대표 정광은)는 지난 11월 11~12일 양일간 개최된 서울 G20 정상회의에 복합기를 후원했다고 밝혔다. G20 회원국 정상들이 글로벌 이슈를 논의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인 이번 회의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으며, 미디어센터에 등록된 기자는 G20 정상회의 사상 최대 규모인 63개국 4200여 명에 달했다.

한국후지제록스는 국내외 기자단이 서울 G20 정상회의의 소식을 세계 각국에 생생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복합기와 소모품, 서비스 일체를 무상으로 지원했다. 미디어센터와 G20 참가 수행원들을 위한 문서실에 한국후지제록스의 최신 컬러 복합기 아페오스포트-IV C3370을 비롯해 총 36대의 복합기가 제공됐으며, 기술 요원들이 24시간 상주하면서 문서 출력에 불편이 없도록 서비스를 지원했다.

한국HP, 'HP 디자인젯 3종' 출시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지난 11월 9일 인쇄 소요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인 'HP 디자인젯 3종'을 출시하고 대형 출력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HP 디자인젯은 건축, 대형 도면, 그래픽, 맵, 지리정보시스템(GIS) 등의 전문 상업용 프린팅 시장을 겨냥한 제품으로 정교한 세부 표현으로 이미지 전달 효과를 극대화 시키는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출시하는 디자인젯 시리즈는 ▲HP 디자인젯 T7100 프린터 ▲HP 디자인젯 Z6200 포토 프린터 ▲HP 디자인젯 T2300 복합기 총 3종이다.

'HP 디자인젯 T7100 프린터'는 경제적인 비용으로 생산성을 극대화 시킨 제품이다. 'HP 디자인젯 Z6200포토 프린터'는 기존 HP 디자인젯 대비 50% 빨라진 출력 속도로 사진 및 대형 이미지 출력에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한다. 김병수 한국HP 이미징 프린팅 그룹 그래픽 솔루션 사업부 이사는 "전문 대형 출력 시장에서는 시간 내 정밀하고 퀄리티 높은 작업이 경쟁력이 된다. 한국HP는 프린팅 업계 선두 기업으로서 최상의 출력 품질은 물론 기업의 비용절감과 업무 효율성을 지원에 지속적으로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HP, HP 반반한 이벤트 실시

한국HP(대표 스티븐 길)는 지난 10월 21일 동급 컬러 레이저 제품 대비 장당 출력 비용을 50% 절감하는 신제품 'HP 오피스젯 e-복합기 시리즈'를 출시하고 직장인들의



점심 값 50%를 지원해주는 '프린터 유지비도 반! 밥값도 반! HP 반반한 이벤트'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지난 10월 21일부터 11월 4일까지 'HP 오피스젯'의 제품 타깃인 소호 및 SMB 오피스가 밀집되어 있는 구로디지털단지, 교대, 신사, 을지로 4곳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프로모션을 기획한 한국HP 이미징 프린팅 그룹 김상현 전무는 "비용절감에 민감한 SMB나 SOHO의 직장인들이 쓰기에 적합한 오피스젯인 만큼 유지비 절감에 가장 초점을 맞췄다. 동급 컬러 레이저 대비 50% 유지비가 저렴한 HP 오피스젯과 함께 점심 값도 절반으로 줄이고 더 많은 혜택을 고객들이 즐기길 바란다"고 이번 프로모션의 취지를 설명했다.

리소코리아, 서울국제기독교엑스포에 출품

(주)리소코리아(대표이사 우에무라 사토시)는 지난 10월 20일부터 23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2010 서울국제기독교 엑스포'에 자사 제품을 출품했다고 밝혔다. 리소코리아는 풀 컬러 프린터 'ComColor7050A'와 2컬러 디지털 인쇄기 'MZ1070A' 제품 전시와 함께 제품 시연의 자리를 마련했다.

리소코리아 우에무라 사토시 대표는 "이번 전시회를 통해 리소의 모노 제품뿐만 아니라, 풀 컬러와 2컬러의 인쇄기로 교회 주요용 대표 브랜드로서의 이미지를 확립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 교회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학교 등에서도 리소코리아가 디지털 인쇄기의 대표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테스토코리아, 대구 국제자동차기기전 참가



테스토코리아(지사장 이명식)는 지난 11월 10일부터 13일까지 대구 EXCO에서 개최된 '2010 대구 국제자동차기기전'에 참가하여 다양한 측정 관련 신제품들을 전시했다고 밝혔다. 테스토코리아는 남부권의 고객들이 더욱 편리하게 자사 제품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울산 사무소를 창원(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연락처 055-222-2470)으로 이전하고, 보다 빨리 테스토의 다양한 제품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자 이번 전시회에 참가했다고 전했다.

이번 전시회에는 업그레이드 된 열화상 카메라 testo 875와 testo 881, 무선 온습도 측정 시스템 테스트 사베리스, 데이터 로거, 접촉하지 않아도 측정 대상의 온도를 빠르고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적외선 온도계를 비롯한 다양한 온습도계 등 다양한 측정 장비를 선보였다.

테스토코리아 관계자는 "테스토의 최첨단 측정 장비가 다

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가운데 남부권, 특히 창원을 중심으로 한 영남지역의 산업현장에서 이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테스트의 정밀한 기술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오키프린터, 일본 굿디자인 어워드 수상

한국오키시스템즈(대표 유동준)는 오키프린터스의 신제품인 C510dn과 C530dn이 일본의 '2010 굿 디자인 어워드(Good Design Award 2010)'를 수상했다고 발표했다. 한국오키시스템즈 유동준 사장은 "오키의 브랜드 가치는 결국 오키의 LED 프린터 원천기술과 이 기술이 반영된 제



품을 통해서 표현되는 것"이라면서 "오키 프린터의 기본 철학인 S3, 즉 견고하고 간편하면서 스마트한 프린터로 오키의 브랜드 가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스위트 공개

한국어도비시스템즈(대표이사 지준영)는 지난 11월 16일 출판물을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해 모바일 장터를 통해 유통하고 이에 대한 소비 분석을 통해 마케팅 전략을 최적화하는 통합 솔루션인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스위트(Adobe Digital Publishing Suite)를 발표했다.

호스트 서비스와 뷰어 기술을 포함하는 어도비 디지털 퍼블리싱 스위트는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스위트(Adobe Creative Suite)와 어도비 인디자인 CS5(Adobe InDesign CS5)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읽기경험을 디자인하고 ▶이를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사용자에게 전달하고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최적의 마케팅을 위한 유연한 전자상거래 모델 지원과 ▶독자 분석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출판전문가들은 고정된 지면 레이아웃과 변형 가능한 유연한 디지털 레이아웃을 매우 효율적으로 동시에 운영할 수 있다.

홈페이지_ <http://www.adobe.com/kr>

출판뉴스

한국출판학회, 추계학술대회 개최



한국출판학회(회장 이정준)는 지난 11월 19일 오후 1시 출판문화회관 4층 강당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1, 2부로 나뉘어 오후 5시까지 진행된 이번 학술대회는 1부 '한국출판산업사 연구 발표회'에서 한국출판연구소 백원근 책임연구원이 '한국 현대 출판산업(생산) 발달사 연구'에 대해, 신종락 성균관대(정보관리연구소) 전임 연구원이 '1960~2000년대 한국출판유통의 변천에 관한 연구'에 대해, 대진대 이용준 교수가 '1970~1990년대 한국도서출판 소비 연구'에 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신구대 이창경 교수, 전 대한출판문화협회 이두영 사무국장, 국립중앙박물관 이재정 학예연구원 등 3인의 토론이 이어졌다.

2부 출판전공 대학원 우수논문 발표회에선 '아동도서의 스토리텔링에 관한 연구(조은주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 출판잡지전공)', '조직구조특성과 조직공정성에 대한 자각이 직무태도에 미치는 영향(서강대 언론대학원 출판전공)', '출판인 홍지용의 생애사 연구(홍영완 중앙대 신문방송대학원 출판정보미디어전공) 등 총 3편의 언론정보 및 출판정보 대학원생 우수 논문들이 발표됐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유창준 대한인쇄문화협회 전무이사, 박익순 대한출판문화협회 사무국장, 오혜영 전 샘터사 단행본팀 과장 등 3인의 토론이 이어졌다.

'스마트폰 시대의 전자출판' 세미나

한국전자출판학회(회장 이기성)는 계원대 출판디자인과와 공동으로 지난달 19일 '스마트폰 시대의 전자출판'이라는 주제로 학술 세미나 및 전시회를 개최했다.

한국전자출판학회 세미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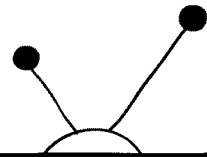
계원디자인예술대학에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계원디자인예술대학 이기성 교수와 원광대학교 김경도 겸임교수, 삼양미디어출판사 박찬희 부장이 주제 발표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12개의 전자책(ebook)이 출품되어 큰 관심을 모았다.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 국제출판포럼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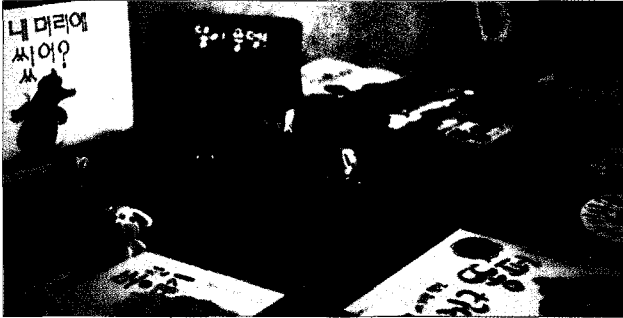


파주출판도시문화재단(이사장 이기웅)은 지난 10월 28일부터 양일간 파주출판도시 아시아출판정보문화센터에서 '제5회 파주북시티 국제출판포럼'을 개최했다.

'넘나들 : 뉴미디어와 출판콘텐츠의 확장'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한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 대만 등 6개국 출판 전문가 20여명이 콘텐츠간 융합, 새로운 출판 비즈니스 모델, 콘텐츠 산업의 현황과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포럼은 첫날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미디어 융합과 문화의 신세기'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하는데 이어 조지 슬로워 미국 퍼블리셔스 위클리 대표, 김진혁 EBS PD, 유지나 동국대 교수가 책과 방송·영화 콘텐츠의 융합, 콘텐츠 개발 전략 등에 대해 열린 토론을 벌였다. 29일에는 사나에 오치아이 일본 전자책 포털 'hon.jp' 대표, 앨런 로우 캐나다 왓패드 대표, 김성룡 교보문고 대표 등이 모바일과 출판 산업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똥과 함께 놀자” 동책축제



‘똥’이라는 이색 주제로 파주출판도시안에 있는 출판사 북샵들이 지난 10월 30일부터 한 달간 동책축제를 개최했다. 이번 축제는 참가자들이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출판도시 곳곳의 북샵들을 찾아다니며 각 출판사가 마련한 프로그램에 골고루 참가하게 짜여 있다. 참여한 출판사는 길벗어린이 책소풍, 김영사 행복한마음, 문화+공간, 보리 개똥이네 쉼터, 보림책방, 비룡소 까멜레옹, 비밀의 책방, 사계절 책향기가 나는 집, 시공사 네버랜드, 어린이도서관 꿈꾸는 교실, 책마을 전시장, 여원미디어 탄탄스토리하우스 등이다.

북샵 <문화+공간>에서는 유아를 대상으로 한 대소변 가리기부터 뒷간과 화장실의 역사까지 다양한 내용의 책을 전시한다. 동물의 흔적을 찾아 흙으로 똥을 만드는 프로그램과 사진 작가에게 사진을 배우는 코너는 참가자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다. 홈페이지_ www.pajubookworld.com

제지뉴스

한솔제지, 전 임직원 산행

한솔제지(대표 오규현)는 지난 10월 전 임직원이 함께하는 청계산 산행 행사를 가졌다. 19일 경영지원본부와 22일 영업 본부로 나누어 진행된 이번 행사는 임직원들의 화합 및 결속을 다지고자 마련되었다. 한솔제지는 행사에 참가한 임직원들이 청계산 정상에서 ‘세계 최고의 고객가치창출 기업’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했으며 서재우 영업본부장은 이후 진행된 저녁 식사자리에서 영업 우수사원 시상 등을 통해 임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며 남은 기간 합심해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컨트롤 유니온, 사유림 FSC인증 추진



컨트롤유니온씨티퍼케이션코리아(대표 안 시퍼)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사유림에 대한 FSC인증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진행되고 있는 사유림을 위한 FSC(국제 산림관리 협의회) 인증을 추진하는 대상은 산림조합 중앙회의 산림을 포함하여 1만5천헥타르에 이르는 지역이다. 국내에는 강원도의 국유림을 포함하여 약 20만 헥타르가 인증이 되어 있는 상태이다. 산림인증은 사회, 경제, 환경의 측면에서 10개 대원칙을 갖고 있으며 주요한 인증단계는 예비심사, 산주 및 지역 주민, 노동자 및 관련 단체와의 컨설팅 및 심사, 본심사와 사후관리로 크게 나누어지고 있다.

컨트롤유니온코리아측은 이번 FSC-FM/COC 인증의 우선적인 목표는 인증된 목재를 가공하여 제지 용도의 펄프를 생산하기 위함이며 해외에 주력 수출품인 친환경 제지 및 인쇄물의 필수적인 FSC 인증을 위해 해당 원료의 공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태였다고 전했다.

한편, 예비심사에서는 산림조합 중앙회의 산림경영팀과 컨트롤 유니온의 선임심사원 및 지역 심사원이 진행했으며 12월 중에 본 심사를 추진하여 2010년 이내 인증을 받는다는 계획으로 인증준비를 하고 있다.

아시아 펄프·제지산업 회의단 무림P&P 울산공장 방문



무림제지(대표 김인중)는 아시아 펄프·제지산업 회의단이 지난 10월 29일 무림P&P 울산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아시아 펄프·제지시장의 리더 110여명이 함께해 무림P&P 울산공장의 설비현황과 비전을 살피고 특히 85% 이상의 진척률을 보이고 있는 일관화공장 현장을 직접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대만, 중국,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펄프·제지업계 리더들은 일관화공장에 설치된 최신 초시기 설비를 살피며 질의응답을 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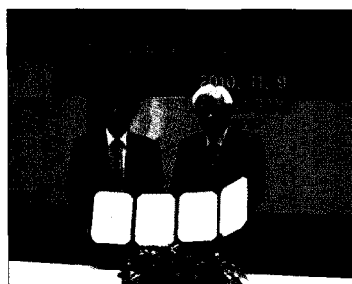
무림페이퍼, 저탄소 녹색성장 환경부장관상 수상



무림페이퍼(대표 김인중)는 지난 10월 6일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개최된 '친환경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시상식'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녹색기술 개발로 친환경시스템을 구축,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한 단체를 발굴코자 마련한 이번 포상에서 무림페이퍼는 자사의 '아트지군'이 에너지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한 녹색제품으로 선정돼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전했다.

무림P&P-남부지방산림청 '전목재 수집 시범사업' 추진 협약

무림P&P(대표 김인중)는 지난 11월 9일 울산공장 대회의실에서 남부지방산림청과 '전목재 수집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전 목재 수집사업은 기존의 나무 원줄기만 이용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나무를 가지와 잎이 붙어 있는 상태로 수집·활용하는 것으로, 무림P&P는 이번 협약을 통해 국내 목재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부방침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림, 2011 캘린더 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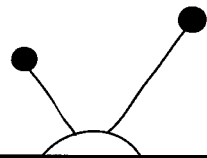
무림(대표 김인중)은 지난 10월 말 2011년 캘린더를 출시, 배포했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12월을 포함해 제작한 무림의 14개월 캘린더는 탁상용, 벽걸이용 2종으로 타사 캘린더에 비해 두 달 먼저 배포됐다. 무림 캘린더 중 탁상용은 무림SP의 네오럭서리(백색) 230g/㎡으로, 벽걸이용은 네오CCP와 네오클린폴라리스 등 주요 지종으로 사용해 기업들의 캘린더 수요가 많은 연말에 종이 샘플북으로 유용성을 인정받고 있다.

한국제지, 고객사 초청 공장투어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지난 10월 16일~17일 신승지류 임직원 18명을 대상으로 한 공장투어를 진행한데 이어 지난 11월 13일~14일에는 실수요업체인 알파유통 75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공장 초청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한국제지는 온산공장의 깨끗하고 친환경적인 시설을 공개하여 품질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공장견학 외에 고객을 위한 별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객과의 화합을 다지는 뜻 깊은 시간이 되었다고 전했다.

경상대 환경임상학 전공 학생 한국제지 견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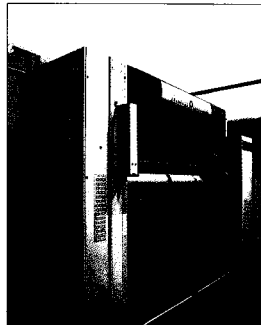
한국제지(대표 김창권)는 지난 11월 3일 경상대학교 환경임상학 전공 학생 총 70여명이 온산 공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경상대학교 학생들은 지난해 4월 경남 누리사업단 현장실습의 일환으로 공장견학을 실시한 인연을 바탕으로 올해도 온산공장을 찾았다. 한국제지는 "학생들은 기대 이상으로 웅장한 공장 규모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으며 한국제지의 생산 제품에 대해 많은 호기심과 관심을 보였다"며 "앞으로도 산학협력 차원에서 이런 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외뉴스

만로랜드 리토만 S, Weiss-Druck에 첫 설치

만로랜드는 시간당 최대 432만 페이지까지 인쇄할 수 있는 96페이지 리토만 S가 독일 Monschau의 Weiss-Druck 인쇄 회사에 최초로 설치되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96p 리토만 S를 도입한 Weiss-Druck는 이번 투자로 인쇄 2.86m의 웹 쪽으로 인쇄가 가능하게 되었다.



만로랜드의 Peter Kuisle 운전기 판매 부사장은 “인쇄 회사들이 더 많은 80페이지 및 96페이지 운전기를 설치하게 되면 인쇄 회사들 사이에 더 많은 합병이 일어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만로랜드는 인쇄기 제조업체로서 인쇄업계에서 기술적 리더가 되길 바라며, 우리 인쇄기를 사용하는 인쇄 회사들 또한 인쇄업계에서 확실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밝혔다.

프린트 미디어 아카데미, 내년 1월부터 프린트 바이어를 위한 과정 개설

하이델베르크는 2011년 1월부터 프린트 바이어를 위한 과정을 개설한다고 밝혔다. 프린트 미디어 아카데미(PMA)의 프린트 바이어 과정은 생산 전문가, 바이어, 마케팅 매니저, 광고의 그래픽 디자이너 및 인쇄 에이전시, 출판사 및 광고 회사가 4일간 효율적 인쇄물 생산 과정 및 새롭고 주목 받을 인쇄 종류에 대해 배울 기회를 제공한다. 참가자들은 인쇄 조건을 구체화하고 인쇄 서비스 공급사를 선택하며 작업을 맡길 때 알아야 할 것들을 교육받는다. 또한 인쇄 작업을 승인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확실하게 인쇄 품질을 평가하는 방법을 배운다. 4일간의 세미나를 통해 인쇄에서 고객에게 중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 파악할



기회를 갖게 된다.

코스를 성공적으로 마치면 ‘프린트 미디어 어드바이저’인 증서를 수여해 국제적 수준에서 복잡한 인쇄 프로젝트를 관리 하는데 있어 그들의 전문성을 보증한다.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 www.print-media-academy.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이델베르크, 친환경 인쇄위한 종합 솔루션 소개

하이델베르크는 지난 10월 HEI ECO 인포메이션 데이를 개최하여 친환경 인쇄를 위한 최신의 솔루션을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이델베르크는 환경 친화적 인쇄를 위해 프리프레스, 인쇄 및 프리넥 인쇄 워크플로를 포함한 후가공에서 인쇄재료와 관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인쇄기의 탄소 발자국을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인쇄업계 유일의 제조사로서 고객 요청에 따라 CO₂중립으로 만들 수 있다. 환경 보호는 거의 20년간 하이델베르크의 목표로 확립되어 왔으며 회사 내부에 있는 프린트 미디어 센터와 비슬로흐-발도프 공장은 2008년에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2009년 이후 FSC 인증된 용지만을 모든 하이델베르크 인쇄물에 사용되고 있다.

또한 하이델베르크는 인쇄 과정에서의 CO₂, 공정 폐기물 및 기타 배출가스 등 세 가지 부문에서 종이 소모를 줄이는 것이 비용과 배출 절감을 높이는데 효율성을 갖고 있다고 보고 이에 대한 조치로 준비 손지를 크게 줄이는 워크플로와 기술을 개발, 실용화했다. 보통 인쇄 과정에서 탄소 발자국의 5~10%를 차지하는 것을 줄이기 위해 하이델베르크는 시장에서 가장 에너지 효율적인 제품들, 수프라세터 A52/A75등을 공급해 에너지 소비를 20%까지 감소시키고 있다.

하이델베르크의 서비스 총책임자인 키슬링(Marcel Kiessling)씨는 “인쇄 산업에는 인쇄사의 비용 효율성뿐 아니라 환경적 성과를 높이는 지속가능한 서비스로 가고 있다. 많

은 인쇄 회사는 환경 보호에 대한 종합적 접근 방법이 중요한 경쟁력이 된다는 것을 안다. 하이텔베르그는 그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프리넥 인프레스 콘트롤, 친환경 인쇄 지원

하이텔베르그는 프리넥 인프레스 콘트롤 (Prinect Inpress Control) 인라인 측정 시스템이 인쇄 회사의 수익성과 환경적 성과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이텔베르그가 수행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프리넥 인프레스 콘트롤은 손지를 작업 당 평균적으로 100 ~ 150매까지 절감할 수 있으며 설정 시간은 8~12분까지 줄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프리넥 워크플로와 연결되면 설정 프로세스 당 350매까지 절감하는 것도 가능하며 작업 프로세스가 빨라져 추가적으로 에너지가 절감되어 작업 내용과 인쇄기 모델에 따라 연간 CO₂ 배출을 122M/T까지 가능하다.



하이텔베르그 기계 부문 이사회 책임자 스테판 플란츠 (Stephan Plenz)는 “평균적으로 하이텔베르그는 2대당 1대의 스피드마스터 XL 105와 4대당 1대의 XL 75에 프리넥 인프레스 콘트롤을 장착하는데 이는 적은 손지, 적은 에너지, 적은 CO₂ 배출을 통해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데 기여한다”고 전했다.

프리넥 인프레스 콘트롤은 자동으로 인쇄가 진행되고 있는 동안 색상과 핀 맞춤을 측정하고 조정하며 인쇄기에 통합되어 있어 측정 장치는 4원색, 별색 및 핀 맞춤을 컬러바에서 측정한다. 필요한 수정은 바로 프리넥 프레스 센터 인쇄기 콘트롤 스테이션으로 전달된다. 인쇄 작업의 설정과 모니터링을 위해 인쇄기를 멈출 필요가 없기 때문에 프리넥 인스펙션 콘트롤은 생산성을 높이고 손지와 에너지 소모를 절감하여 환경을 보호한다.

코닥, IDEA 컨퍼런스에서 변화와 혁신 주장

코닥은 지난 10월 28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 IDEA 컨퍼런스

스에서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과 혁신적인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닥 디지털 프린팅 솔루션 소비자 개발팀의 Eric Owen 부사장은 “IDEA 컨퍼런스에서는 마케팅자들이 어떻게 적절한 커뮤니케이션을 만들어내고 마케팅 투자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해내는 예를 보여주고 토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Ad Age's IDEA Conference는 각종 산업에 걸쳐있는 회사들이 그들의 비즈니스를 세우는 혁신적인 방법에 대해 쇼케이스를 갖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HP, 싱가포르 디자인 센터 오픈



HP는 이미징프린팅 (Imaging Printing Group, 이하 IPG) 그룹의 디자인 센터를 싱가포르에 오픈한다고 밝혔다. HP IPG 디자인 센터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 디자인의 허브로서 디자인 과정에 있어 사용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싱가포르에 개관한 글로벌 디자인 센터는 모든 지역에서 일어나는 디자인 활동의 허브 역할을 하게 되며, 인도 및 중국의 HP 디자인 팀과 협력하여 HP 데스크젯 (Deskjet), HP 포토스마트 (Photosmart), HP 오피스젯 (Officejet), HP 오피스젯 프로 (Officejet Pro), HP 리테일 퍼블리싱 솔루션 (Retail Publishing Solutions) 등 전 세계에서 판매될 제품 라인을 설계하고 개발하게 된다. 또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위치한 글로벌 OEM (주문자 상표 생산 부착) 제휴 업체들과도 보다 긴밀히 협력해 제품의 디자인과 편의성을 향상시킬 전망이다.

HP 이미징 프린팅 그룹의 비요메시 조쉬 (Vyomesh Joshi) 부사장은 “혁신은 HP DNA의 요소라 할 수 있다. 혁신을 바탕으로 하는 HP 디자인 센터는 사용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